

2018년 10월 2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달러 약세 전환 후 하락폭 축소 실적 시즌 이후 '자사주 매입' 증가 기대감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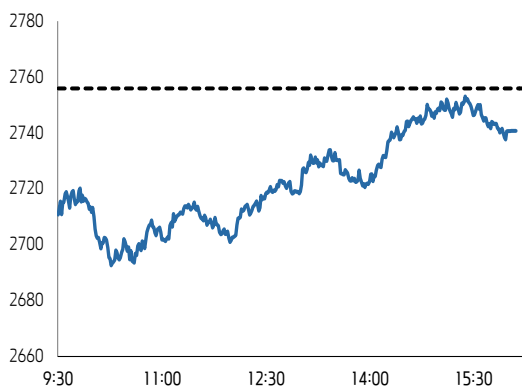
미 증시 상승과 하락 요인

미 증시는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 발표에 따른 러시아, 중국과의 분쟁 격화, 이탈리아 2019년 예산안에 대한 EU의 거부, 국제유가 급락,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하락 여파로 부진. 다만, 장 초반 하락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 축소. 특히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고 일부 기업들이 실적 시즌 이후 자사주 매입을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점이 영향(다우 -0.50%, 나스닥 -0.42%, S&P500 -0.55%, 러셀 2000 -0.84%)

미 증시는 ①미-러, 중 지정학적 리스크 ②이탈리아-EU 마찰 ③국제유가 급락 ④기업들의 실적 발표 여파로 하락.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러시아와 중국이 정신 차릴 때까지 핵무력을 증강시킬 것" 이라고 발표하자 시장참여자들은 '신냉전' 우려감이 높아졌다는 점에 투자심리 위축. 한편, 이탈리아의 2019년 예산안에 대해 EU가 거부하고 3주 안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는 소식도 부담. EU 집행위는 일부 항목(정부지출 등)이 EU 규정을 위반하자 예산안을 거부. 이와 함께 국제유가가 4.2% 급락한 점도 영향. 국제유가는 11월 미국의 이란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사우디가 '책임있는 역할'을 발표하자 이란의 원유 생산량 축소를 사우디가 보충할 수 있다고 해석. 더불어 캐터필라, 3M이 가이던스 하향 조정한 점도 주식시장 하락 요인. 캐터필라는 관세 부과, 운송 비용증가를 이유로, 3M은 달러 강세를 이유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 이는 미-중간의 무역분쟁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 향후 기업들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

다만, ①달러 약세 전환 ②자사주 매입 기대 ③국제금리 안정 등이 이어지자 미 증시는 하락폭 축소. 특히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 상반기 상승 요인 중 하나였던 기술주에 대한 '자사주 매입'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지수는 낙폭 축소. 한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중립금리까지 금리는 상승하겠지만, 이후 경로를 점검할 것"이라며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한 점도 지수 하락폭 축소 요인. 이와 함께 달러화는 보스틱 총재의 발언과 ECB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 이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매물 출회되며 약세 전환.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06.10	-2.57	홍콩항셱	25,346.55	-3.08
KOSDAQ	719.00	-3.38	영국	6,955.21	-1.24
DOW	25,191.43	-0.50	독일	11,274.28	-2.17
NASDAQ	7,437.54	-0.42	프랑스	4,967.69	-1.69
S&P 500	2,740.69	-0.55	스페인	8,726.10	-0.91
상하이종합	2,594.83	-2.26	그리스	619.47	-1.14
일본	22,010.78	-2.67	이탈리아	18,802.47	-0.8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하락폭 축소

캐터필라(-7.56%)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으나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발효, 운송비용 증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인한 비용 증가를 이유로 향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 하자 하락 했다. 디어(-3.99%)도 동반 하락했다. 3M(-4.38%)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으나 달러 강세를 빌미로 향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자 하락 했다. 반면, 통신업체인 버라이즌(+4.06%)과 소매 유통 업체인 맥도날드(+6.31%), 항공기 부품 업체인 유나이티드 테크(+2.86%)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장 마감 후 TI(+0.53%)는 실적 발표 후 시간외로 5% 넘게 급락 중이다.

한편, 셰브론(-3.25%), 코노코필립스(-3.93%)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 했다. 한 때 3% 넘게 급락하던 아마존(-1.15%)을 비롯해 알파벳(+0.32%), 애플(+0.94%) 등 대형 기술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특히 실적 발표 이후 자사주 매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점이 낙폭 축소나 상승 전환한 요인으로 추정한다. 마이크로소프트(-2.72%)는 독립 리서치 회사인 SIG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의 수요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3.53%	대형 가치주 ETF	-0.61%
에너지섹터 ETF	-3.72%	중형 가치주 ETF	-0.69%
소매업체 ETF	+0.34%	소형 가치주 ETF	-0.85%
금융섹터 ETF	-0.80%	배당주 ETF	-0.50%
기술섹터 ETF	-0.38%	변동성 ETF	+3.82%
소셜 미디어업체 ETF	-1.00%	대형 성장주 ETF	-0.51%
인터넷업체 ETF	-0.40%	중형 성장주 ETF	-0.67%
리츠업체 ETF	+0.64%	소형 성장주 ETF	-0.79%
주택건설업체 ETF	+1.62%	신흥국 고배당 ETF	-1.20%
바이오섹터 ETF	-0.48%	신흥국 저변동성 ETF	-1.10%
헬스케어 ETF	-0.54%	하이일드 ETF	-0.06%
곡물 ETF	+0.23%	물가연동채 ETF	+0.03%
반도체 ETF	-0.40%	Long/short ETF	+0.5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10.17	-2.67%	-5.66%	-10.14%
소재	326.05	-1.15%	-4.64%	-12.59%
산업재	603.10	-1.60%	-4.75%	-8.56%
경기소비재	851.57	-0.12%	-3.30%	-8.68%
필수소비재	560.21	+0.41%	+2.19%	+1.04%
헬스케어	1,044.60	-0.53%	-2.94%	-4.22%
금융	429.82	-0.83%	-3.17%	-8.68%
IT	1,233.61	-0.40%	-2.07%	-6.17%
커뮤니케이션	153.76	+0.40%	-0.81%	-3.50%
유틸리티	273.68	-0.52%	+0.29%	+3.84%
부동산	195.33	+0.69%	+0.03%	-2.9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등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1.80% MSCI 신흥 지수도 1.10%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도(-459 계약)에도 불구하고 1.25pt 상승한 274.4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4.6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 예상한다.

미 증시는 아시아와 유럽 증시 하락 요인들로 인해 장 초반 큰 폭으로 하락 출발 했으나,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 했다. 특히 최근 미 증시 하락 요인이었던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자사주 매입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며 기술주가 낙폭을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한 데 힘입은 결과였다. 이러한 미 증시의 안정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고 미 국채금리가 안정을 보인 점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비록 국채금리는 장 초반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하락 했으나, 오후 들어 지수가 하락폭을 축소했음에도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했다. 이는 라파엘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등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달러화 약세와 미 국채금리 안정은 외국인 매도세를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특히 미 증시 마감 후 찰스 에반스, 에스더 조지 등 연준위원들의 발언 이후 미 국채금리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제유가가 사우디 증산 가능성이 제기되며 급락한 점, 마이크론이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둔화 우려로 투자의견이 하향 조정된 점, 텍사스인스트루먼트가 실적 발표 후 시간외로 6% 내외 하락한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더불어 전일 중국 증시가 2% 넘게 하락한 점 또한 부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승폭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표 둔화

10 월 리치몬드 연은 지수는 지난달(29)이나 예상치(24)를 하회한 15 에 그쳤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34→20), 출하지수(33→7)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다만 고용지수(16→18)는 상승하며 여전히 고용지표 개선세는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는 글로벌 증시 하락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 강화 및 사우디 아라비아 증산 우려가 높아지자 급락 했다. 특히 11 월 미국의 이란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사우디가 ‘책임있는 역할’을 발표한 점이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이는 이란을 비롯해 베네수엘라 등의 원유 생산량 축소를 사우디가 증산하며 보충 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 한편, 캐터필라가 실적 가이드언스를 하향 조정 한 점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이었다. 가이드언스 하락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감이 높아졌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감을 자극 했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강세로 전환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로 전환 했다. 유로화는 EU 가 이탈리아 예산안을 거부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3 주 안에 일부 규정 위반 항목을 수정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달러 대비 강세로 전환 했다. 파운드화는 메이 총리에 대한 당대표 불신임안을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후 들어 강세로 전환했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강세폭은 축소되었다.

국채금리는 장 초반에는 위험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하락 출발 했다. 그러나 2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12 개월 평균(2.78 배) 보다 약한 2.67 배에 그치자 하락은 제한 되었다. 한편, 라파엘 애틀란타 연은 총재를 비롯해 연준위원들이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라파엘 총재는 “중립금리까지 금리를 올리겠지만, 이후에는 경로를 점검 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해 비철금속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다만,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힘입어 낙폭은 제한되거나 상승하는 등 보험권에서 등락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보험으로 철근은 0.26%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6.43	-4.22	-7.43	Dollar Index	95.928	-0.09	+0.93
브렌트유	76.44	-4.25	-6.10	EUR/USD	1.1473	+0.08	-0.87
금	1,236.80	+1.00	+0.47	USD/JPY	112.44	-0.34	+0.17
은	14.793	+1.41	+0.63	GBP/USD	1.2986	+0.18	-1.48
알루미늄	2,001.00	-0.30	-1.62	USD/CHF	0.9951	-0.09	+0.44
전기동	6,196.00	-0.74	-0.31	AUD/USD	0.7088	+0.10	-0.74
아연	2,669.00	+0.49	+2.42	USD/CAD	1.3079	-0.17	+1.12
옥수수	370.25	+0.20	-1.33	USD/BRL	3.6998	+0.38	-0.66
밀	509.00	+0.20	-2.77	USD/CNH	6.9397	+0.04	+0.38
대두	871.00	-0.17	-3.14	USD/KRW	1137.60	+0.82	+0.85
커피	121.10	+2.93	+2.93	USD/KRW NDF1M	1134.65	+0.23	+1.0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166	-3.21	+0.24	스페인	1.660	-3.30	+1.90
한국	2.307	-3.50	-6.80	포르투갈	2.001	-0.60	+6.60
일본	0.152	-0.20	+0.40	그리스	4.290	-1.80	+3.40
독일	0.409	-3.90	-8.20	이탈리아	3.589	+10.20	+13.90